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 비교 분석 연구

Kyoung Rang Lee (Sejong University) Ju Eun Lim (Sejong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30, 2021
Revised: June 18, 2021
Accepted: June 27, 2021

Kyoung Ra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jong
University
Tel: 02-3408-3118
kranglee@sejong.ac.kr

Ju Eun Lim
Researche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jong
Univ.
Tel: 02-3408-3302
etntn2@naver.com

ABSTRACT

Lee, Kyoung Rang and Lim, Ju Eun. 2021. A comparison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etween 2009 and 2015 Revised Curricul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581-598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many, and how often,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e introduced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2015 Revised Curricula) to promote self-regulated learning. To this end, the coding scheme developed for analyzing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the textbooks with 2009 Revised Curriculum was used; four categories were grounded and added to the coding scheme. Thirty-nine textbooks (2015)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y with 59 textbooks (2009). First, 2015 Revised Curriculu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in learning, which seemed to increase the categories and frequencies of the strategies dramatically. Second, speaking and writing strategies were also significantly added to reading and listening strategies, which mainly consisted of the 2009 textbooks. Third, although the total in speaking and writing strategies increased, the during-strategies of which were still not enough to help learners practice speaking and writing. Fourth, there was little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and frequencies of the strategies among the grades, unlike the 2009 textbooks (the textbooks for the second graders had less than those for the first and third graders). With the detailed results, future studies regarding classroom practices are suggested, as are implications for the next Revised Curriculum.

KEYWORDS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2015 Revised curriculum, self-regulation

1. 서론

언어학습전략(language learning strategies)은 전략이라는 전쟁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학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정신적 활동 (“...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e purposeful mental actions (sometimes accompanied by observable behaviors) used by a learner to regulate his or her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Oxford 2018, p. 81)으로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영어를 습득해야 하는 이민자 대상 수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함께 수가 늘어난 영어학습자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미서부 지역에서는 영어 학습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 소개하기 위한 교사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기도 하고, 영어학습전략을 포함한 효과적 교실 적용을 위한 교수모형(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SIOP)도 개발하였다(Vogt and Echevarria 2008). 총 8단계로 이루어진 SIOP 교수모형에서는 준비(Preparation), 기존 지식 활성화(Building background),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학습전략(Strategies), 상호작용(Interaction), 연습과 적용(Practice and application), 수업(Lesson delivery), 복습과 평가(Review and assessment)의 절차를 거치며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전략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금은 미국 전역의 유·초·중등 전 학년(pre-K-12)에게 활용하고 있지만, 원래 SIOP 교수모형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Vogt and Echevarria 2008). 이 교수모형에서 학습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용 지식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을 오해했던 영어학습자들에게, 발달 정도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가 능숙해지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학습전략을 가르치면 적절한 내용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영어 능력과 내용 지식의 단계가 일치하기 어려운 중학교 단계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전략의 소개는 꼭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영어 기술(skills)과 불균형을 이루는 내용 지식을 배워야 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실시간 및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었던 학습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학습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중 실제로 대화자들과 만나서 배운 언어지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영어 과목에서의 학습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학생 수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영어로 의사소통 수업을 하기도 곤란하고,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어도 마스크로 인해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발음 및 기타 비언어적 요소 습득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해 진 것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8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중학교 모든 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 따른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 수업이 역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핵심 역량 중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교과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며, 이 중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모하는 자기관리 역량의 대표적 요소로 학습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self-directed)으로 학습 목표를 쉽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동(Oxford 1990)으로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 독립성, 자율성 등이 향상된다고 한다(Dickinson 1987).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실시간 및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영어학습전략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중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친다면 어떤 전략을 얼마나 자주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명시적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그에 따른 학습전략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표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08) 역량 중심이 아니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개정할 교육과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영어학습전략은 Oxford(2018)가 정의했듯이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활동을 조절하는 정신적 활동으로서 보통은 관찰 가능한 행동(behaviors)과 함께 나타나므로, 교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르칠 수도 있고, 학생의 전략 활용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Macaro 2001). 일부 학자들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학습전략을 동의어로 여기며(Cohen 2007), 학습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어떤 때 해야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기주도적 조절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이경량, 김수연, 김슬기, 이윤정 2011, Gu 2003, Rubin 2005).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의식적인 행동인 학습전략(Griffiths 2008; Oxford 1990)은 새가 날거나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문자와 읽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이 학습전략 역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한다(Palincsar and Perry 1995). 다시 말해,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할 지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경량 외 2011).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전략 사용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했던 이전의 연구들(Nyikos 1991, Williams 1993)을 보더라도, 우수한 학습자들과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이 비슷하게 많은 전략을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우수한 학습자들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이용하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해 보기 때문에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학습전략은 1980년대에 가장 활발히 연구가 되었으며, Chamot와 O'Malley(1987)의 3개

범주(상위인지전략, 인지전략, 사회-감정전략)와 18개 항목, Oxford(1990)의 6개 범주(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 상위인지전략, 사회전략, 감정전략)와 50개 항목 등 다양한 분류와 이를 활용한 측정 설문지들이 개발되었다(Cohen 1998, Padron and Waxman 1988, Politzer 1983, Politzer and McGroarty 1985). 초기에는 학습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전략 항목들을 제시하였으나,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모형들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지학문적 언어학습법(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CALLA)이며(O'Malley and Chamot 1990) 단계별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론 암묵적으로 학습전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 시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Eslinger, 2000; Griffiths, 2003), 학습자들은 전략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울 때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고 하며(Ikeda and Takeuchi 2003, O'Malley and Chamot 1990),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지 결정하려면, 다양한 학습전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학습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Anderson 2005). SIOP 교수 모형에서도 그러하듯이 수업 중 명시적으로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과정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효과적이므로(Rubin, Chamot, Harris and Anderson 2007, Vogt and Echevarria 2008),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영어 교과서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약 10년 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 모두(총 59종: 1학년 25종, 2학년 19종, 3학년 15종)를 분석한 연구에서(이경량 외 2011), 학습전략의 종류를 기술별(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어휘, 문법) 및 시기별(전, 중, 후)로 나누어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영어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는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배경지식 활성화하기(activating prior knowledge)와 같은 전략은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 미리 관련 배경지식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과마다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여 암묵적으로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해봐야 하는 정신적 활동(전략)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교과서 전반에 암묵적이더라도 학습전략을 제시하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은 좋았으나, 대부분이 읽기 전 활동(총 619개의 전략 중 393개)과 관련된 전략으로, 문법 전략(총 4개)이나 어휘 전략(총 7개)은 매우 적은 양이 제시되어 있어 균형 잡힌 전략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학년별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2학년 교과서에 가장 적은 종류(약 3종류)와 빈도(교과서마다 평균 약 8회)로, 1학년(약 4종류, 교과서마다 평균 약 10회)과 3학년(약 5종류, 교과서마다 평균 약 14회) 교과서에서보다 적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교과서 전반에 걸쳐 학습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종류와 빈도에서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암묵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지윤과 김영민(2019)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5종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전략을 분석하였다. 영어학습전략 분류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Oxford(1990)의 전략 분류(인지전략, 기억전략, 보상전략, 상위인지전략, 정의전략, 사회전략)별 전략 제시 빈도와 교과서 내 활동별 쓰인 전략 등을 비교한 결과, 여전히 특정

전략에 한정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말해, 주의집중전략 등 상위인지전략, 패턴인식/사용전략 등 인지전략, 추측전략 등 보상전략이 주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미미하였으며, 소리연상전략과 같이 말하기 관련 전략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학습전략에 대해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시행되었으나(김인옥 2019), 쓰기 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쓰기 전, 중, 후 활동을 제시하기보다는 쓰기 활동 후 교사가 답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다는 쓰기 지도 절차로서의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비슷하게 영어 기술별 세부적 전략 분석을 했던 연구 중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읽기 전략을 분석했던 연구가 있었다(김경은 2007). 영어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읽기 전략(이경량 외 2011)에 대해 중학교 2학년 5종 영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 간에 읽기 전략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냐에 따라 학습전략 습득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교과서 이외의 다른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 학습전략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과서 내 콘텐츠 중 문화 내용과 관련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권정혜, 임정완 2018, 장나래, 김정렬 2018), 교과서 내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보다 자기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전략을 더욱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전체 영어 교과서의 영어학습전략 현황을 이전 교과서와 함께 비교해봄으로써,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 내의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도 변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전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와 현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전략, 특히 자기관리 역량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영어학습전략은 변화가 있었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 소개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2. 학년별로 가르치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 소개된 영어학습전략이 학년별로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교과서를 설정하였다. 특히 중학교 영어는 영어 기술과 내용 지식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온라인 학습 등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한 도래할 교과과정 개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정도가 1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전체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이경랑 외 2011)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표 1).

표 1. 분석 대상 중학교 영어 교과서

	2015 교과서	2009 교과서
1학년	13	25
2학년	13	19
3학년	13	15
합	39	59

3.2 연구 도구

중학교 영어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이경랑 외 2011)를 기반으로 하여 두 차례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서 내 학습전략 제시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연구의 분석 목록(표 2)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영어학습전략을 찾아낼 때 참조할 수 있는 기존의 표준목록(coding scheme)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기초하여 대상 교과서에서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어학습전략을 찾으며 목록을 확장해가며 완성하였다.

이 표준목록을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분석 대상 교과서들을 살펴 본 후, 4개의 새로운 전략(추론하기, 프로젝트 활동하기, 이해 확인하기, 확장하기)이 확인되어 총 23가지의 영어학습전략을 분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부록 참고). 새로이 추가된 전략은 중(during) 활동으로 제시되는 학습전략(추론하기, 프로젝트 활동하기)과 주로 후(after) 활동으로 제시되는 학습전략(이해 확인하기, 확장하기)이었다. 이중 이해확인하기는 기존 연구의 분석 표준목록에 의하면 모니터하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하기는 주어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니터해야 할 때로 제한하고,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할 때는 이해확인하기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추론하기는 단어의미 추측과는 달리 어떤 내용인지 문맥으로 추론하는 활동이고, 프로젝트활동하기는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동영상이나 포스터 만들기, 내용 소개하기 등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이며, 확장하기는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활동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영어학습전략 분석 목록

출판사: _____	저자: _____	분석대상 과: _____
영어학습전략	쪽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전 중 후 지문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참여 유도하기		
예측하기		
브레인스토밍하기		
예행연습하기		
훑어보기		
개인화하기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속도조절하기		
소리 내어 읽기		
훑내 내기		
추측하기		
추론하기(추가)		
패턴 찾기		
주제 찾기		
프로젝트활동하기(추가)		
시각화하기		
의미 묶기		
모니터하기		
이해확인하기(추가)		
감정적 반응하기		
요약하기		
확장하기(추가)		

3.3 자료 수집 절차

중학교 검인정 영어 교과서 13종씩, 총 39종을 모두 수집한 후, 기존 연구의 교과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와 같이 각 권 세 개의 과(총 9과의 책에서는 1과, 5과, 9과, 총 7과의 책에서는 1과, 4과, 7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년 이상 영어교육 학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인 본 논문의 공저자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 별 초별 분석, 집중 분석, 확인 분석 등 3회 이상씩 검토하며 교과서별 분석 목록을 완성하였다. 초별 분석 중 위에서 언급한 추가된 학습전략이 추출되어(grounded), 이미 검토한 교과서들도 다시 확인하며 집중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검토 중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확인을 하였다. 각 전략이 제시된 교과서의 쪽 수와 지문을 모두 기록하여 완성된 분석 목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다.

3.4 자료 분석 절차

교과서별로 분석 목록에 완성된 학습전략 분석 현황을 우선 학년별로 전략별 총 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코딩하고, 전략들을 영어 기술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로 코딩하여, 합산한 종류와 빈도 등을 기술검정과 통계프로그램(SPSS 18.0)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전략별 코딩한 결과를 모아 각 교과서별 제시된 학습전략의 종류와 총 빈도를 정리한 후, 독립표본 t-검정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기간별(2009와 2015) 비교를 실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학습전략 결과와 데이터를 분리한 후, 학년별로 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 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개 학년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영어 기술별 코딩한 결과를 모아 기술별 전(before), 중(during), 후(after) 활동으로 쓰이는 전략들을 기간별(2009와 2015) 및 학년별(1, 2, 3학년)로 각각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기술별 총 전략 제시 빈도(총 듣기전략, 총 말하기전략, 총 읽기전략, 총 쓰기 전략, 총 어휘전략, 총 문법전략)와 함께, 각 활동 시기별(총 전-전략, 총 중-전략, 총 후-전략) 빈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연구질문 1.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영어학습전략은 변화가 있었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 소개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기존 연구 결과, 59종의 영어 교과서에서 총 619개(본 연구의 39종 교과서 수와 표준화시킨 학습전략의 수는 409개)의 학습전략이 소개되었던 것에 비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학습전략을 자기관리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 명시적으로 강조했던 것의 영향인지, 39종 영어 교과서에서 총 3,050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학습전략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교과서에서 약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자주 학습전략에 노출이 될 수 있어, 학습전략 습득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구축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의 수를 교과서 39종으로 표준화시키지 않더라도 소리 내어 읽기와 감정적 반응하기 두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제시된 학습전략 종류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제시되었던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와 참여 유도하기 등은 다른 항목들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브레인스토밍하기, 예행 연습하기, 개인화하기,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추측하기, 패턴 찾기, 모니터하기, 요약하기 등은 학년별로도 고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1학년 교과서와 달리 2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종류들도 많았으며 제시된 대부분의 학습전략이 전-전략이었던 것(전-전략 467, 중-전략 112, 후-전략 40)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모든 학년에 거의 모든 종류가 비슷하게 제시되었으며 전-전략(986), 중-전략(983), 후-전략(1,081)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영어학습전략을 골고루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전략별 전체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영어학습전략 빈도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본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이경량 외 2011)			
		계 (39)	1학년 (13)	2학년 (13)	3학년 (13)	계 (59)	1학년 (25)	2학년 (19)	3학년 (15)
전 - 전 략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70	26	25	19	171	72	51	48
	참여 유도하기	159	55	50	54	169	61	51	57
	예측하기	148	50	51	47	63	26	14	22
	브레인스토밍하기	117	39	39	39	24	7	6	11
	예행 연습하기	289	95	97	97	1	1	0	0
	훑어보기	37	10	15	12	13	7	2	4
	개인화하기	166	50	52	64	26	2	3	21
중 - 전 략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384	110	123	151	61	28	12	21
	속도 조절하기	18	6	6	6	9	9	0	0
	소리 내어 읽기	2	2	0	0	6	6	0	0
	흥내 내기	63	23	20	20	4	4	0	0
	추측하기	121	32	44	45	6	3	0	3
	추론하기	17	4	6	7	새로 추가된 항목임			
	패턴 찾기	166	45	58	63	23	15	5	3
	주제 찾기	16	9	5	2	3	3	0	0
	프로젝트 활동하기	196	76	59	61	새로 추가된 항목임			
후 - 전 략	시각화하기	14	7	2	5	1	0	1	0
	의미 묵기	33	9	15	9	20	7	3	10
	모니터하기	372	132	123	117	10	2	1	7
	이해확인하기	461	142	158	161	새로 추가된 항목임			
	감정적 반응하기	0	0	0	0	8	3	4	1
	요약하기	63	16	18	29	1	0	0	1
	확장하기	138	45	50	43	새로 추가된 항목임			
계		3,050	983	1,016	1,051	619	256	153	210

영어 기술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이 읽기전략(전 393, 중 19, 후 36)이었으며 듣기전략(전 40, 중 40, 후 1)이 약간 추가된 것과 같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말하기전략, 쓰기전략, 듣기전략이 크게 증가되어 이러한 불균형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4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39종으로 표준화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두 시기별 교과서 내에

제시된 영어 기술별 영어학습전략의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학습전략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기술별 전체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기 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본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이경량 외 2011)			
		계 (39)	1학년 (13)	2학년 (13)	3학년 (13)	계 (59)	1학년 (25)	2학년 (19)	3학년 (15)
듣 기	전	133	44	57	32	40	23	7	10
	중	290	100	90	100	40	23	0	17
	후	32	6	12	14	1	1	0	0
말 하 기	전	393	132	127	134	24	18	6	0
	중	28	9	10	9	7	7	0	0
	후	406	153	134	119	0	0	0	0
읽 기	전	262	83	89	90	393	144	122	127
	중	496	143	161	192	19	16	3	0
	후	394	126	134	134	36	14	7	15
쓰 기	전	158	52	52	54	45	3	6	36
	중	1	1	0	0	2	1	0	1
	후	235	75	78	82	1	0	1	0
어 휘	전	55	19	18	18	0	0	0	0
	중	40	3	15	22	7	3	0	4
	후	3	3	0	0	0	0	0	0
문 법	전	10	7	0	3	0	0	0	0
	중	98	26	36	36	1	0	1	0
	후	16	1	3	12	3	3	0	0
계		3,050	983	1,016	1,051	619	256	153	210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 영어교육 방법의 주를 이루던 읽기 관련 학습전략에 편중되어 있고, 그마저도 읽기 전-전략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로 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최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네 개의 중요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학습전략이 골고루 많아진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이경량 외 2011) 결과에서 교과서의 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중-전략)와 이해하거나 표현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후-전략)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며, 향후 중-전략과 후-전략을 교사에게 먼저 소개하여 학생들에게도 해당 전략들을 가르칠 것을 권장하던 대로,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영어의 기술별 전, 중, 후 행동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읽기전략 중에서도 전-전략이 대부분이었는데, 중-전략과 후-전략이 증가하여 읽기 활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으며, 어휘와 문법 관련 영어학습전략도 놓치지 않고 추가하려고 한 시도들도 매우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쓰기 중-전략과 말하기 중-전략이 이전과 비슷하게 거의 제시되지 않거나 소수인 것은, 듣기나 읽기에 비해 교실에서 직접 쓰거나 말하기 중 활동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교실에서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과제나 확장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학습전략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두 차례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는 표 3을 훑어보기만 해도 차이가 쉽게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해보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자기관리 역량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던 교육과정에 근거한 최근 교과서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종류(약 4종류와 약 15종류로 유의미한 차이)와 높은 빈도(약 8회와 약 78회로 유의미한 차이)로 영어학습전략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종류와 빈도 모두 $p = .000$). 다시 말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분석 대상 영어학습전략의 종류가 총 19개였는데, 이 중 교과서별로 평균 4종류의 전략만을 활용하고 그마저도 평균 8회 정도만 제시되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분석 대상 영어학습전략 총 23개 중 대다수(15종)를 고루, 그리고 자주(78회)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략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학습전략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영어학습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과서 내에 제시하려고 노력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표5.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종류와 빈도

영어 학습 전략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본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이경량 외 2011)			<i>t</i>	<i>Sig.</i>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종류	39	15.36	1.53	59	3.82	1.95	31.55	.000
빈도	39	78.21	12.65	59	8.47	5.81	39.98	.000

4.2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연구질문 2. 학년별로 가르치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 소개된 영어학습전략이 학년별로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학년별로 다루고 있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표 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서는 영어학습전략의 빈도와 횟수가 학년별로 달랐었지만(2학년이 종류와 빈도에서 1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적었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학년별로 제시한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제시하는 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늘어났지만 학년별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이는 학년별로 필요로 하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 전략을 3년 동안 일관되게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재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성취도별)과 나이 수준(학년별)에 따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략을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3년 동안 비슷한 전략의 레퍼토리를 제시하여 포괄적인 익숙함을 지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지난 교과서와 달리 교육과정이라는 제작 지침에 필요한 내용을 넣었을 때 학년별로 고루 일관된 교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향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미래 교육 환경에 필요한 중요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고려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표6. 학년별 영어학습전략 교수 현황의 변화: 종류와 빈도

영어학습 전략	1학년			2학년			3학년			F	Sig.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2015	종류	13	15.62	1.61	13	15.38	1.66	13	15.08	1.38	.39	.678
	빈도	13	75.62	11.62	13	78.15	12.97	13	80.85	13.73	.54	.586
2009	종류	25	4.28	1.49	19	3.32	1.20	15	5.20	1.66	7.15	.002
	빈도	25	10.24	4.47	19	8.05	2.84	15	13.93	4.40	9.15	.000

5. 결론

본 연구는 약 10년 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얼마나 자주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던 기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향후 개정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하게 되었다.

교과서 검인정 본심사에서 합격한 중학교 모든 교과서(59권)를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영어학습전략 분석 목록을 완성한 기존 연구의 분석 목록을 활용하여, 10년 후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39권)에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총 19 종류의 영어학습전략 분석 목록을 가지고 현재의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기존과 달리 추가된 학습전략 4종류를 포함하여 총 23 종류의 학습전략을 검토하였다. 23종의 영어학습전략은 전체 학습 전략의 종류와 빈도를 전체 및 학년별로도 분석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의 영어 기술별 전-전략, 중-전략, 후-전략으로 구분하여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종류의 영어학습전략을 더 자주 제시하였다. 학년별로도 같은 상황으로, 모든 학년 교과서에 압도적으로 많은 전략이 자주 제시되어 약 10년 전보다 5배 이상(총 619회에서 3,050회로 증가)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기술별로도 읽기전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읽기전략 중에서도 전-전략이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말하기전략과 쓰기전략, 그리고 읽기전략까지도 고루 제시되고 있어 이전의 기술별 전략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휘전략과 문법전략의 수는 부족한 편이며, 전, 중, 후 시기별 전략을 비교한 결과 말하기 중-전략과 쓰기 중-전략이 읽기전략과 듣기전략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가 제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영어 교실에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학년별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게 달랐으며 2학년 교과서에 1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종류가 낮은 빈도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서는 학년별로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23종의 영어학습전략 중 평균적으로 15종 이상의 학습전략이 78회 이상 제시되어 4종류의 학습전략이 8회 정도 제시되었던 이전 교과서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학년별로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즉,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 기술별로도 상대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제시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시사하고 권장한 대로의 변화가 보여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교과과정을 개정할 때 2015 개정시와 비슷하게 자기관리 역량에 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교과서 내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과, 학년별로 영어학습전략 종류와 빈도가 비슷했던 것 중, 어떤 것이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학습전략 습득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를 통해 비슷한 종류의 전략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학년별로 다른 종류의 학습전략을 소개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3년은 이러한 비교를 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므로, 가능하다면 한 학기나 일년의 기간을 정해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준실험연구 등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교과서에 영어학습전략을 제시한 것이 영어학습전략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영어 교사들이 가르치는지 현장의 상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영어학습전략이 전체적으로 자주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영어 교사들이 영어학습전략이라고 인지하는지, 학생들에게 인지한 상태로 가르치는지,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가르치는 방법이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학습자들도 교과서에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을 전략이라고 인지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이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유사한 과업을 수행할 때 스스로 선택해서 활용가능한지 등 교과서에 제시된 영어학습전략이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시사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현장에서의 적용 관련 후속 연구 결과도 고려함으로써, 향후 교과과정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는 학습전략의 종류와 빈도가 증가하였더라도, 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의 전략에 대한 믿음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대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I do), 학생과 함께 해보고(we do), 학생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you do) 절차적 스캐폴딩(procedural scaffolding)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과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에게 먼저 학습전략 교수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현장 적용 노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어 교과서를 접하는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교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 (I)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 (제2008-160호, 2008. 12. 26). Seoul: MEST.
- 교육과학기술부(MEST). 2015. 영어과 교육과정(English Curriculum) (제2015-74호 별책 14). Seoul: MEST.
- 김경은(Kim, K. E.). 2007.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 전략 분석(An analysis of reading strategies in 2nd-year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권정혜, 임정완(Kwon, J. H. and Lim, J.).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공통영어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An analysis of the topics and cultural content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under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15). *《언어학》(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 (3), 117-137.
- 김인옥(Kim, I.-O.).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6학년 영어 교과서 쓰기 활동 분석(An analysis of writing activities in the 6th grade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교육과정평가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2(2), 91-111.
- 박지윤, 김영민(Park, J.-Y. and Kim, Y.-M.). 2019. 2015 개정 초등영어 3, 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전략 분석(An analysis of the learning strategies in 3rd and 4th grade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of 2015 revised curriculum). *《교육논총》(The Journal of Education)*, 39 (4), 21-39.
- 이경량, 김수연, 김슬기, 이윤정(Lee, K. R., Kim, S.-Y., Kim, S.-G. and Lee, Y.-J.). 2011. 자기 주도적 학습자 양성을 위한 영어 학습전략 교수모형 연구: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in Korean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2 (1), 177-201.
- 장나래, 김정렬(Jang, N.-R. and Kim, J.-R.). 2018.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grades 3 and 4 based on the 2015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 (8), 1-8.
- Anderson, N. J. 2005. L2 strategy research. In E. Hinkel, ed., *Handbook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757-772. Mahwah, NJ: Erlbaum.
- Cohen, A. D. 2007. Coming to terms with language learner strategies: surveying the experts. In A. D. Cohen and E. Macaro, eds., *Language Learner Strategies*, 29-4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Reading, MA: Addison

- Wesley Longman.
- Eslinger, C. E. 2000. *A More Responsive Mind: A Study of Learning Strategy Adaptation among Culturally Diverse ES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 Griffiths, C. 2003. Patterns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System* 31(3), 367–383.
- Gu, P. Y. (2003). Find brush and freehand: The vocabulary–learning art of two successful Chinese EFL learners. *TESOL Quarterly* 37(1), 73–104.
- Ikeda, M. and O. Takeuchi. (2000). Tasks and strategy use: Empirical implications for questionnaire studies. *JACET Bulletin* 31, 21–32.
- Macaro, E. 2001. *Learning Strategies in Foreign and second Language Classrooms*. London: Continuum.
- Nyikos, M. 1991. Prioritizing student learning: A guide for teachers. In L. Strasheim, ed., *Focus on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Priorities and Strategies*, 25–39.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 O'Malley, J. M. and A. U. Chamot.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L. R. 2018.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A. Burns and J. C. Richards, eds., *The Cambridge Guide to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81–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Heinle & Heinle.
- Padron, Y. N. and H. C. Waxman. 1988. The effect of ESL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cognitive reading strategies on reading achievement. *TESOL Quarterly* 22(1), 146–150.
- Palincsar, A. S. and N. E. Perry. 1995. Developmental, cognitive,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assessing and instructing reading. *School Psychology Review* 24(3), 331–344.
- Politzer, R. L. 1983. An exploratory study of self–reported language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achieve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1), 54–68.
- Politzer, R. L. and M. McGroarty.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gains in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19(1), 103–123.
- Rubin, J. 2005. The expert language learner: A review of good language learner studies and learner strategies. In K. Johnson, ed., *Expertis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7–63).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Rubin, J., A. U. Chamot, V. Harris and N. J. Anderson. 2007. Intervening in the use of strategies. In A. D. Cohen and E. Macaro, eds., *Language Learner Strategies*, 141–16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ogt, M. E. and Echevarria, J. 2008. *99 Ideas and Activities for Teaching English Learners with the SIOP® Model*. Boston: Allyn & Bacon.

Williams, J. P. 1993. Comprehension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Identification of narrative themes and idiosyncratic text represent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631–641.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Secondary, Tertiary

부록

영어학습전략 분석 표준목록

	영어학습전략	해당 내용	교과서에서 찾은 지시문 예
주로 전(before) 활동으로 제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activating prior knowledge)	주어진 주제나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질문이나 활동이 주어졌을 때	사진 속 여행지의 이름을 찾은 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짚고 이야기해 봅시다.
	참여 유도하기 (Engaging)	주어진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때(읽을 내용에 대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측하기 (Predicting)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때	영어 듣기 공부를 할 때에는 제목, 주제, 그림 등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들은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하기 (brainstorming)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는 어떤 것을 쓸지 단어나 표현 등을 생각해 봐야 할 때	먼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써 봅시다.
	예행연습하기 (rehearsing)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할 때	말하기 전 연습하기: 전화를 걸기 전에 전화 대화를 미리 연습해 봅시다.
	훑어보기 (scanning)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 빠르게 훑어보아야 할 때	본문을 빠르게 읽고 그림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을 써 봅시다.
	개인화하기 (personalizing)	주어진 내용을 본인의 경우와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읽은 내용에 대해)	새해 첫날 하는 일에 대한 글을 써 봅시다. 자신이 새해 첫날 하는 일에 √표 해 봅시다.
주로 중(during) 활동으로 제시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paying selective attention)	주어진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찾아야 할 때	영어 문장을 들을 때에는 강세가 있는 낱말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강세가 있는 낱말을 들으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도조절하기 (pacing)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지 표시하며 읽어야 할 때	1 st : Reading Time __min.__sec. 2 nd : Reading Time __min.__sec.
	소리 내어 읽기 (reading aloud)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진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할 때	각 단락 옆에 “Read Aloud”라고 작게 표기
	흉내 내기 (imitating)	똑같이 흉내 내 봐야 할 때	강세와 억양을 지켜 말하기: 강세와 억양을 지켜가며 말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기 능력도 향상됩니다.
	추측하기 (guessing meaning)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해야 할 때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본 뒤 사전에서 찾아 확인해 봅시다.

주로 후(after) 활동으로 제시	추론하기 (making inferences)	어떤 내용일지 추론해야 할 때	만화를 보고 종이가 할머니께 전화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패턴 찾기 (finding patterns)	주어진 표현이나 소리 등의 규칙성을 찾아야 할 때	다음을 듣고 빨간색 철자의 소리에 유의하며 따라 읽어 봅시다.
	주제 찾기 (finding main ideas)	주어진 내용의 주제를 찾아야 할 때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치세요.
	프로젝트활동하기 (working on a project)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때	카드 속 인물이 되어 자신을 소개해봅시다.
	시각화하기 (visualizing)	주어진 내용을 그림이나 심상으로 정리해야 할 때	다음 그림을 보고 누구의 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인지 연결해 봅시다.
	의미 묶기 (grouping)	이해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해야 할 때	다음 도표를 완성하면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모니터하기 (monitoring)	주어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니터해야 할 때	Self-check... 이름과 출신지를 소개할 수 있나요?
	이해확인하기 (comprehension check-up)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할 때	다음 문장을 읽고, 관계 있는 곳에 표시해봅시다.
	감정적 반응하기 (reacting to the text)	주어진 내용에 대해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정리해야 할 때	How much do you like it? (0-----5)
	요약하기 (summarizing)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써야 할 때	과학자에 대한 글을 읽고 분석해 보세요.
	확장하기 (expanding)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확장할 때	세계 여러 문화에서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봅시다.